
第5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7月3日(金)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

議事日程

1. 文化觀光局懸案報告

審査된案件

○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教育院長新任人事 ... 1面

1. 文化觀光局懸案報告 ... 3面

(10時 23分 開議)

○委員長 權會榮;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지난 4月 22日자로 赴任하신 新任 公務員教育院 院長과 幹部들의 人事紹介가 있겠습니다.

○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教育院長新任人事

○公務員教育院長 李元宅; 尊敬하는 權會榮 文化教育委員會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지난 4月 22日자로 公務員教育院長으로 赴任한 李元宅입니다.

지난해 市議會가 開院한 이래 文化教育委員會의 委員 여러분께서 各별하신 指導와 鞭撻을 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 公務員 教育訓練의 內實化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은 交通, 쓰레기, 環境, 住宅 等 解決해야 할 都市問題가 山積해 있으며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市民들의 시 行政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날로 增加하고 있는 實情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都市問題를 보다 效率적으로 解決하고 증대하는 市民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市 公務員들의 市民에 대한 봉사심 提高와 專門知識 涵養을 통한 資質向上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 敎育院에서는 今年度 敎育訓練의 基本目標를 正直, 清廉, 親切한 公務意識 涵養, 專門行政人 養成으로 行政水準 向上, 創造的 未來指向的인 公務者像 定立에 두고 시 公務員의 淨化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參考로 今年度 重要 重點推進事業을 간략하게 報告를 드리면 첫째, 管理職公務員에 대한 敎育을 強化하였습니다. 1,2,3 級 公務員을 對象으로 하는 高級管理者 課程을 新設해서 지난 6월에 1泊 2日間の 研鑽敎育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書記官 昇進者를 對象으로 하는 4級 中堅幹部 課程은 今年에도 1年間の 敎育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一般行政의 機能을 強化하기 위하여 洞事務長 敎育課程을 新設, 運營하여 최일선 機關인 洞事務所의 事務管理能力을 向上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新規採用 公務員에 대해서는 公職適應能力培養을 위해서 任用 前 1週敎育과 任用後 2週敎育을 區分 實施하고 心性開發 프로그램을 도입, 運營해서 公職者 자세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問題解決 能力과 創造的 業務 遂行能力을 提高하기 위하여 20餘個區가 참여하는 問題解決事例研究發表會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第1回 研究發表會는 首都圈 交通問題解決方案이라는 主題로 다가올 7月 10日에 敎育院에서 개최할 豫定입니다. 관심 있으신 委員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와 協助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敎育訓練을 計劃하거나 執行하는 科程에서 發生하는 어려움이나 미처 생각지 못한 事案들에 대해서는 隨時로 委員 여러분들의 高見을 받고자 하오니 변함없이 指導와 鞭撻을 부탁드립니다. 人事에 같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5月 1日字로 새로 赴任한 敎育院幹部를 우선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庶務課長 李鍾祿, 敎學課長 洪熙英, 企劃課長 朴鍾丁)

○委員長 權會榮; 네, 수고하셨습니다. 公務員敎育院 院長님과 이하 幹部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1. 文化觀光局懸案報告

○委員長 權會榮;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局懸案報告를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新任 文化觀光局長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아울러서 幹部도 紹介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안녕하십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입니다. 존경하는 權會榮 委員長님, 그리고 文化敎育委員님을 모시고 오늘 文化觀光局 當面業務를 報告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月 27日字 人事發令에 따라서 文化觀光局長으로 赴任한 이래 그간 여러 委員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2個月 남짓 文化觀光局長의 補職을 받아 오면서 제 나름대로 서울시 觀光振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局에서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指導해 주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모든 業務를 정상적으로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委員님들의 많은 指導鞭撻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業務報告를 드리기 전에 저희 文化觀光局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世宗文化會館事務局長 陳英浩, 文化課長 李相燾, 文化財課長 高完基, 觀光課長 金賢鍾)

이어서 우리 시 文化觀光局所管 當面業務現況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委員長 權會榮; 다음에는 文化觀光局長의 報告에 대한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答辯節次는 文化觀光局長이 赴任한 지가 오래 되지를 앞서서 委員님들의 質疑를 먼저 받고 綜合해서 一括答辯하는 方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曹相彩 委員; 曹相彩 委員입니다. 文化觀光局長이 지금 여러 가지 說明을 하셨는데 市立博物館·美術館 建立에 대해서 지금 建立問題가 確定이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한테 通報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議決을 要하는 것인지, '91年 10月 26日

建立推進 計劃이 確定 되었다는 날짜가 명시되었는데 누가 確定을 했고 그 規定된 배경이 무엇인지 說明해 주세요.

○委員長 權會榮; 다른 委員님 또 계시면 말씀하세요.

○金熙健 委員; 金熙健 委員입니다. 지금 曹相彩 委員님 質疑와 같은 內容인데요, 慶熙宮 復元에 關係된 內容中에 보면 지금 龍飛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慶熙宮에..... 龍飛川이 옛날에 아마 仁祖로부터 哲宗까지 朝鮮 10代에 걸친 王들이 마시던 샘물이랍니다. 이 龍飛川이라고 하는 것이.....

이 龍飛川이 지금 말라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理由가 무엇인지 아시면 答辯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曹相彩 委員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2年度 豫算編成을 할 당시에 博物館하고 또 이것 저것 해 가지고 文化觀光局에서 뭘 짓겠다 하는 內容에 관한 件이, 제 기억에는 지금 전혀 反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確定이 됐다고 하는 部分은 納得이 안 돼요, 만약에 確定이 됐다고 하는 內容이 확실하면 豫算編成內容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계시는대로 소상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喆鎬 委員; 質問을 전부 하고 答辯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委員長 權會榮; 質問이 다 끝난 다음에 一括的으로.....

○李喆鎬 委員; 答辯을 一括的으로 받게요? 李喆鎬 委員입니다. 지금 報告 말씀을 전부 들었는데, 豫想事業에 대한 것을 듣고 昨年度 우리가 檢討한 書類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昨年 文化觀光局所官業務가 '91年 9月 10日 하고 業務監查時 2차례에 걸쳐서 質問을 한 內容입니다.

定都600年 記念事業과 關聯해서 質疑한 內容은 이 중에 서울 文學作品 600年史를 정리해서 編纂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또 600年 記念事業속에 國際文學페스티벌을 推進할 用意在 없는가 하는 것 하고, 다음은 文學博物館을 設立할 用意在 없는가, 이 외에도 作故文人들의 標石이라든지 遺跡地의 標石 등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新規事業에 보면 유독 綜合藝術 分野에서 文化事業에 文學部門이 유독 빠져 있고 또 美術과 造形 또는 彫刻 繪畫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衡平의 原則에 의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얘기 했었습니다. 質疑를 했을 때 당시 局長은 600年企劃團이 構成이 되면 正式案件으로 上程을 해서 檢討하겠다는 答辯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여기 모든 委員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600年企劃團이 構成이 되어서 활발히 活動하고 있는 事實을 알았습니다. 昨年에 本委員이 質疑한 事項이 正式案件으로 上程되어서 檢討되어 있는지 여부와 檢討되었다면 그 實績과 結果에 대해서 答辯을 바랍니다. 만약에 작년에 答辯하신 것처럼 이행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모든 質疑 事項에 대해서 저희들이 市議員으로서의 意味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 結果에 대해서 엄중하게 責任을 추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 時間에 가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質疑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報告事項中 몇 가지를 指摘을 해 보면 傳統文化都市, 世界속의 都市, 이런 것을 표방해서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推進하고 있는 定都 600年記念事業이 전반적으로 볼 때 총체성을 喪失하고 막대한 事業費 投資의 效果에 많은 質問을 제기하게 됩니다. 南山 제모습찾기, 住宅公社 하고 協議한 그런 事實이 아직 저희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또 600年紀念造形物을 基本計劃이 아직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疑心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事業構想案에 따르면 서울알기, 文化일구기, 600年큰잔치, 環境가꾸기, 이렇게 4個 分野로 나누어서 總 18個 事業으로 構成이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가 아까 더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에 보면 寫眞展示, 世界民俗衣裳展이니 宮中儀式的 再現 等 이렇게 해서 약 20餘件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것은 단 한번의 일회성 展示行事 정도로 본다면 600年 意味를 과연 제대로 담아낼지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또 定都600年 記念事業의 간관격인 市立美術館·博物館 建立 또 이런 事業들이 모두 아마 여기를 보면 이달 안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달 안에 착수를 하더라도 정작 紀念해인 94년에는 너무 期間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판의 축제가 졸속행사로 轉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의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外國都市들의 예를 보면 10年前부터 政府와 市民들의 連帶속에서 行使를 준비해서 該當 都市의 過去와 現在와 未來를 총체적으로 浮刻시키는 그러한 것과 저희들이 지금 構想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差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지금 企劃團이 構成이 되어 있는데 觀光局長께서나 企劃團長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적어도 實現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作成을 하는데 再考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再檢討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은 우리 千萬 市民들의 問題點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答辯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外國의 例라고 그랬는데 具體적으로 베를린같은 데도 定都750年 記念事業 推進에 있

어서 약 7·8年 내지 10年の 과정을 가지고 事業計劃을 推進했던 것을 發見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市民들의 의혹이 없는 또 풀 수 있는 그러한 答辯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事業을 보니까 여기도 나와있습시다만 대체적으로 文學을 전부 뺐습니다. 民俗工藝陶藝展이니 또 寫眞展이니 또 傳統公演藝術文化學術大會 이런 것을 보면 여기도 音樂, 舞踊, 民俗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또 서울600年紀念藝術創作品 懸賞募集公募 이런 것도 보면 대개 창극, 교향악, 또는 뮤지컬, 가곡, 가요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음반제작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또 美術大展에 보면 中堅作家의 作品을 企劃展示하고 또 초대작가에도 보면 韓國의 元老 약 300여분의 美術과 工藝大展으로 計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대미술 작가와 판화, 공예, 조각 이런 것도 약 300점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 文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적어도 지난 88올림픽 때도 國際팬클럽에서 서울시장의 後援으로 워커힐에서 世界의 碩學들, 다시 말해서 노벨 문학상을 탄 大文豪들이 總 集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國威宣揚은 물론 서울의 位相을 世界에 確立시켜 준 이러한 계기를 봐서 적어도 600年紀念事業에 文學部分의 行事가 유난히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편중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昨年에도 指摘된 바가 있는데 지금 豫想確定事業에도 그것이 전부 빠져 있는 것은 명확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자꾸 市立博物館 美術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實質적으로 市立博物

館과 美術館을 慶熙宮 近隣公園內에 建立한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市民들의 輿論이나 또한 紙上을 통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審議한 바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計劃까지 세워서 지금 建築規制가 아니면 着工이 되고 있는 事項이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確實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定都600年行事가 정말 우리 서울시로 하여금 무척 엄청나고 또한 오랜 세월동안 화려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時期的으로 봐서, 우리 서울시의 빗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고, 아울러서 市民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사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호화롭지 않은 검소한 定都600年 記念行事를 치룰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委員들이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豫算을 節減하는 範圍 내에서 定都600年 行事를 할 것을 바라고 또 지금 현재 南山제모습찾기 問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南山제모습을 찾는 데도 特別히 무슨 우리 豫算이 많이 들지 않는 範圍 내에서 제 모습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豫算을 많이 들여서 꼭 제 모습을 찾는 그런 狀況은 피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劉起鍾 委員; 劉起鍾 委員입니다. 지금 대개다 市立博物館하고 美術館 建立에 대해서 委員님들이 많이 質疑를 해 주셨는데 이 얼마 전에도 보면 言論과 市民들의 눈이 굉장히 여

기에 많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主務 觀光局에서는 慶熙宮을 復元하고 또 龍飛川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공중화장실을 隣近에 設置를 해서 龍飛川이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고 또 環境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觀光局長님께서는 慶熙宮에 市立博物館과 美術館을 建立하는 것은 우리가 文化財를 保護하고 復元하고 發展시켜야 될 主務局에서 問題點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首防司자리에 市立博物館과 美術館을 建立하는 方案을 그 現場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赴任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前任 局長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또 引受引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言論과 시민들이 이렇게 文化재에 대한 인식과 復元과 發展을 要求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지금 現在 慶熙宮에 이렇게 博物館과 美術館을 建立을 推進해야 되고 建築規制가 풀리면 바로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4年度를 觀光의 해로 정해 가지고 아마 觀光客을 많이 誘致를 하고 또 우리 서울을 外國에 많이 알리는 그런 計劃을 樹立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事業計劃을 볼 것 같으면 전혀 事業計劃에 반영이 안 된 점을 本委員이 指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具體的으로 우리가 使節團만 보내서 外形的인 것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外國人들에 대한 誘致計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네, 말씀하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定都600年記念事業의 一環으로써 昨年에 저희들이 市議會가 탄생되고 나서 상당히 文化

教育委員會에서는 관심이 많았던 하나의 事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昨年에 文化觀光局長께서 상당히 우리 常任委員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事業을 推進해서 여러 가지 定都600年記念事業의 推進을 상당히 報告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이 市長이 바뀌고 擔當局長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定都600年記念事業의 推進實績을 報告받은 자리에서 상당히 單語 자체, 또는 事業의 획일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을 여기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昨年 常任委員會할 때 제가 당시 擔當局長한테 定都600年記念事業의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對答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常任委員會 끝나고 懇談會하는 자리에서 어떤 冊子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마 마스터플랜이다 하고 한번 내 비친 적이 있는데 定都600年이 이제 94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記念事業의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는 것은 좀 行政으로 봐서 未備點이 없지 않나, 拙速行政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豫算規模라든지 또 여기 追加로 보니까 豫想新規事業도 이렇게 또 豫想으로만 계속 나와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천만 서울시민의 어떤 수도 서울을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큰 사업, 이것도 豫算도 보통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豫算인데 불과 2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만해도 제가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섭섭함을 느끼고, 그 다음 雲峴宮買入에 있어서도 昨年 市議會가 탄생되면서 雲峴宮買入 때문에 우리 文化教育委員님들이 굉장히 現場을 수차례 踏査하고 擔當局長하고 여러 가지 晝夜로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雲峴宮買入을 推進을

해 가지고 일단 實施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定都600年 記念事業의 一環으로써 한다고 저희들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報告에 보니까 擔當局長께서는 아예 油印物에 나왔는데도 報告를 생략했고 93年 이후에 어떤 計劃도 없는 이러한 時點에서 報告를 했다면, 앞으로 市長이 바뀌고 擔當局長이 바뀌면 市行政도 자주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소상히 解明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네, 말씀하세요.

○李汪烈 委員; 李汪烈 委員입니다. 우리가 市行政이 展示效果만 노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內實을 기하는 黑字經營의 次元에서 우리가 行政概念보다는 經營紀念으로 앞으로는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高級管理者의 자세요. 哲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次元에서 여러 가지 細部된 業務內容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研究, 檢討가 필히 따르고 總體的인, 合目的的인 極大化的 效率성을 기하기 위해서 努力을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次元에서 제가 質問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定都600年の 文化事業에 우리가 定都600年 行사가, 제가 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期間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고 왔는지 그것을 우선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文化事業概要에 있어서 環境가꾸기에서 漢江邊 文化遺蹟 復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現在 漢江邊이라고 하면 漢江邊을 따라서 邊바깥이라든지 邊內라든지 漢江쪽이라든지 지금 高水敷地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江東區의 경우에는 사실상 江東區 高德1洞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현재 江邊道路를 끼고 江쪽으로 42個의 所有主가 있고 그 다음에 90家口가 현재 居住를 하고 있습니다.

百濟 때부터 蛇城이라고 해 가지고 뱀모양의 城이다. 스네의 케슬이라 해 갖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반정도 원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을 漢江內에서는 전혀 전부 다 高水敷地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없애버렸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어느 하나 遺跡이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아직 소위 이어나 住宅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撤去를 안 하고, 미사리쪽에서 1km下向 地域인데 이러한 文化的인 遺跡가치가 있는 데는 이것을 開發을 해서 自然내지 文化學習場으로 活用을, 유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는 것 전부다 부수고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高水敷地만 평평하게 市民들 잘 놀고 잘 살라고 했는데 레크레이션 레저용으로만 했는데 저 위쪽으로 가면 이러한 아주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全部 漢江管理所長도 만났고 골고루 다 만나서 이러한 것을 綜合的으로 해서 월 觀光局長님도 다시 오셨고, 또 먼저 擔當課長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關係를 아주 심각하게 檢討를 하셔서 이러한 것을 指定을 하셔서 마침 600年定都記念事業의 一環인 우리 漢江의 文化遺蹟復元에도 기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定都600年事業에 우리가 사실 國際的인 行使에 內實을 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는 國際關係에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國際的인 世界都市 首都서울의 位相을 國際的으로 과시하는 하나의 또 다른, 88以後 또 다른 분기점이 되었으면 한다 이것입니다. 해서 에퍼메이킹, 소위 轉換點의 그러한 새로운 2000年代를 指向하는 首都서울의 面貌를 國際行事を 보다

더 效率的으로 조금 다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例를 들어 아까 우리 李喆鎬委員이 얘기했듯이 國際文化 페스티벌도 아주 이성적인 여러 가지 意味보다도 감성적인 이 分野에 世界市民의 한 場으로도 活用할 수 있는 우리 서울정도600年事業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한 마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次元에서 國際學術大會, 國際書藝院이 있는데 國際學術大會가 어떠한 內容의 國際學術大會인지, 例를 들어 國際都市聯盟이라든지 무슨 IBU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內容을 조금 더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理解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94年度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95年度에는 全世界 라이온스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호텔을 지금 現在 서울부근에 다 해봐야 1萬 5,000個室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호텔을 新築許可를 근 1만 2,000내지 1만 5,000개를 許可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觀光의 해라든지 95年度의 어떤 타켓을, 目標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이 지금 現在 進行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과연 이 때 차질 없이 우리 94年度도 그렇지만 95年度에 약 4萬名 정도 우리나라에 올 것입니다. 이러한 大規模의 國際行事が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單價面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호텔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計劃이 있으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울·멕시코 姉妹結緣 이것이 그러면 豫定發效日字가 제 計劃대로 한다면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文化賞 施賞面에서 우리가 지금 施賞 部分이 12個입니다. 다 좋습니다. 골고루 다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社會奉仕賞이, 우리가 어차피 文化의 개념에 美術文化, 音樂文化, 藝術文化, 文化는 하나의 關連적인 次元에서 文化라고 한다면 우리 社會奉仕文化賞, 社會奉仕 즉, 불우 이웃을 한다든가, 警察系統이라든가 社會奉仕團體라든가, 혹은 各個人이라든가 이러한 우수한 功績이 있는 분들에게 주는 賞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네, 社會奉仕賞이요.

그 다음에 北漢山城復元 關係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000名이 市民들이 오셨다고 그 랐습니까?

6,000장을 市民이 날랐다고 했습니까? 해서 우리가 그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럴 때에 우리 市議員도 招請을 해서 우리도 한 장 정도 놓은 意味가 굉장히 클 것으로 알아요, 전부 思考方式에도 호응도를 조금 配慮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4年 韓國訪問의 해, 弘報使節團에서 使節團 構成의 內容에 있어 가지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차피 地方自治化의 극대화를 위해서 議會의 代表性을 가진 議員도 各 파트별로 한 사람 정도는 가서 무엇인가 그쪽하고 유대를 하면서 側面 支援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또 質疑하실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相復 委員; 委員님들에게 動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報告가운데는 重大事項들이 많이 있습니다. 一問一答

式으로 했었을 때에 좀더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委員長님께서서는 일단 質疑를 하고 答辯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時間을 절약하는 意味에서 質疑는 개요만, 제목만 얘기를 하고 이따가 一問一答式일 때 그 때 한번 심도있게 論議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動議를 委員長님께 드립니다. 停會를 하고.....

○委員長 權會榮;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孫允準 委員; 委員長님! 孫允準 委員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出馬할 때 사실 서울시가 伏魔殿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1년이 되고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前 金明柱 觀光局長께서는 마치 자기가 평생을 할 것 같이 지금 文化觀光局을 우리 文化教育委員들에게 열심히 밀어달라고 해서 昨年度 豫算決算委員會에서 豫算을 할 때 常任委員會에서 否決된 것을 本豫決에 追加로 삽입시키면서 잘 해 달라고 그런 豫算까지 決定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觀光局長님 바뀌고 보니까 또한 데이타가 없이 다른 方向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러한 感을 가지고 되고 그래서 우리 孫馥委員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설령 局長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한 基準을 가지고 일을 推進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꼈는데, 또 보니까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우리 同僚委員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94年度 定都600年을 實現하는 그날까지 局長님이 그날까지 있을는지 이러한 생각까지 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會榮; 더 이상 質疑하시 委員님 안 계시면.....

네, 말씀하세요.

○張精一 委員; 張精一 委員입니다. 都市 間 姉妹結緣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基礎하고 各 市·道 廣域하고 보면 都市間 姉妹結緣事業이 아주 붐 이자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이든 또 각 구든 간에 外國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또 오늘 案, 上程된 대로 멕시코하고 서울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러한 姉妹結緣을 해서 우리 關係公務員 또는 區議會를 보니까 區議會議員들도 몇 사람 갑디다만 한번 갔다 오는데 아마 수천만원씩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區民이나 市民의 立場에서 얼마만큼 實益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判斷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만 따지면 다 좋은데 그러한 豫算을 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市民이 또는 우리 서울시가 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어떤 한 個 區가 그렇게 位相이 올라 가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判斷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년에는 우리가 벌써 3군데나 姉妹結緣을 締結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항간에는 저희가 한번 물어 봤더니 어떤 區에서는 가서 締結을 하자고, 우리 멕시코는 여기 報告事項에 보면 서울시보고 하자고 왔는데 다른 데는 가 가지고 좀 이렇게 締結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냉정하게 判斷을 해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推進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또 받아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즉 이렇게 보면 몇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文化的으로 또는

經濟的으로 우리 보다 월등하게 뒤떨어지는 그러한 國家나 都市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外務部나 이런 國家中央政府 次元에서는 援助도 해 주는 마당이니까 여러 가지 좋은데 우리 地方自治團體에서까지 꼭 그렇게 열심히 參與해야 될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判斷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또 重複이 되겠습니다만 內容을 달리 하겠습니다. 慶熙宮안에 美術館이라든가 또는 博物館을 짓는데 상당한 贊反兩論이 있는데 지난번에 文化觀光局 前任者께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勘案을 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勘案을 해서 다른 敷地를 찾아봤는데 꼭 그 場所밖에 없어서 최종적으로 確定을 했는지, 물론 이러한 博物館이나 美術館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都市 中心部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기 현재 國立博物館처럼 산꼭대기 밑에 가 있으면 가 보고 싶어도 1년에 한번 못가 봅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꼭 位置가 거기밖에 안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再檢討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定都600年입니다. 이것은 과거 벌써 이 案件이 여러번 討議가 있었는데 매번마다 原論的인 問題입니다. 定都 600年記念事業 멋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하자 이것으로써 끝이 났는데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신 경우 企劃團이 設立되게 되면 구체적인 案을 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 벌써 누차에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案이 그러면 언제 나올 것이냐 94년에나 구체적인 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寫眞하고 弘報입니다. 그 이전에 확실하게 具體的이고 상세한 內容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만날 우리 말씀해 주실때는 觀光客도 많이 들어오겠다, 市民에게

불편을 안 주겠다. 內實化를 기하겠다. 그것다 原論的인 이야기입니다. 原論的인 이야기 벌써 누차 들었기 때문에 이 時間 이후부터는 原論的이 아닌 細部的인 마스터플랜을 議會에다 報告를 해 주셔야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過程에서 지금 文化觀光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事業 이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변을 오히려 淨化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金浦空港을 나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 사람들은 서울에 오면 돈을 쓸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行事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놀러 와 가지고 달러를 다 쓰고 모자라 가지고 카드로 막 끊고 가야 되는데 현찰을 가지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新聞에도 한번 났을거예요. 觀光客이 金浦에서 돈 가지고 왔는데 그냥 가지고 간다. 그러한 돈 안 들고 우리가 制度的으로 이렇게 改善을 해서 돈을 쓰고 가게 할 것도 많습니다. 그 一例를 들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製造業을 하니까 關係없는데 深夜營業 12時間 制限問題도 觀光客을 誘致次元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制度입니다. 물론 靑少年 犯罪라든가 여러 가지 內的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外的인 것보다 크게 보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소한 規制를 자꾸 묶음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큰 것을 놓치는 그러한 累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會榮;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答辯準備를 하기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34分 繼續開議)

○委員長 權會榮;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文化觀光局長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準備가 두 가지만 되었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를 報告를 드리고 다음에 書面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慶熙宮址 建立의 當爲性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慶熙宮址에 대한 市民輿論이 긍정적인 輿論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輿論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輿論은 建立場所로서 부적절하다. 이것이 宮址이기 때문에 宮址를 復元해야지 美術館·博物館 지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理由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慶熙宮址에다 박물관을 지으면 전통적인 우리 崇政殿이라든지 그런 建物과 現代的인 建物 사이에 調和를 이루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理由입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理論은 慶熙宮址 전체 復元이 사실상 어렵다. 두 번째는 定都600年記念事業을 推進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또 世宗文化會館과 더불어서 文化共感帶를 造成해야 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

또 都心에 위치해서 市民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어야 되겠다. 이러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實務的인 立場에서 볼 것 같으면 慶熙宮址 建立의 妥當性을 여러 委員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慶熙宮址는 원래 7萬坪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2萬 9,787坪입니다. 그러니까 약 4萬餘坪이 道路라든지 市民들에게 지금 다 拂下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萬坪을 復元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實質的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西大門 올라가는 길도 포함되어 있고 또 건너편에 문화 방송국 앞에까지 위치가 定하고 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全面 復元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慶熙宮址는 사실상 都心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施設 이든지간에 國民들이 항상 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交通이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慶熙宮址는 實質的으로 博物館 위치로서는 가장 적합하다.

세계에서 유명한 博物館이 있습니다. 불란서의 루브르박물관이라든지, 스페인의 피카소박물관이라든지, 영국의 테이트박물관이 전부宮에다 지었습니다. 世界的인 유명한 博物館입니다. 그래서 宮에다 지은 것이 하등의, 世界的인 추세라든지 國民感情에는 그렇게 反하지 않는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日帝 時代에 사실상 일본사람들이 慶熙宮址를 철저히 毀損을 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짓는 것은 設計도 우리 韓國사람이 하고 또 그에 맞게 外向도 우리 傳統樣式에 맞추도록 색깔도 칠했습니다. 아무튼 慶熙宮址에 짓는 것이 절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慶熙宮址復元틀하고 현재 짓고 있는 운동장에 짓고 있는 位置가 사실상 거의 分離가 되어 있는 形便입니다. 운동장 位置가 한 10m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慶熙宮址를 復元할 위치는 한 10여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史蹟公園과 博物館은 調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博物館에다가 美術館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意見을 저희들

이 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現在 1層부터 地下 1層, 地上 3層으로 設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地下 2層, 地上 2層 이렇게 저희들이 調整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便所 問題가 있었습시다만 公衆便所도 저희 博物館안에 위치해 가지고 그 公衆便所 問題도 지금 解決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색깔을 말씀드렸습시다만. 現代式建물이.....

○金相復 委員; 잠깐만이요. 答辯하시는데 능수능란한데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얘기가 지금 세 번 나왔는데 그 여러분은 委員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하고, 아가씨들 하고, 뒤에 분, 전부다 通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委員님들한테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答辯을 얼마나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委員님의 質問, 이 件에 대해서 네 분이 質問을 했습니다. 曹相彩 委員님은 내 기억하기로는 慶熙宮 짓는 것 美術館짓는 것, 다 좋은데 우리 承認 안 하는데 왜 그것을 建設部 承認해 가지고 建築規制가 풀리면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누구의 發想이냐라고 물었고 또 저기 委員님 얘기 할 때는 慶熙宮 짓는 贊反論이 나오는데 과연 妥當하느냐의 여부를 진실로 알고 있느냐 하는 그 데이터는 輿論의 向背가 어디로 돌아가고 執行部는 어느쪽으로 밀고 가는데 차후 方法이 무엇이다라는 비전을 提示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質問은 質問者 委員님의 이름을 呼稱을 하고 그 質問에 대한 答辯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죄송합니다. 하도 여러 委員님들이 質問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腹案은 慶熙宮址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反對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意見을 충분히 參考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地上 2層, 地下 2層 이렇게 한번.....

○孫允準 委員; 地下 1層, 地下 3層으로 設計되었던 것이, 우리 文化分科에서는 그런 거론도 없었는데 해 가지고 地下 2層, 地上 2層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지금 저희들이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왜고하니 規模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慶熙宮 復元하고 問題하고 現代美術館 問題하고 調和를 이루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反對하신 분들의 意見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地上 2層, 地下 2層으로 하면 그런 問題는 解決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曹相彩 委員;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 委員長님! 時間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金相復 幹事께서 말씀하신 대로 質問者가 一問一答式으로 質問答辯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委員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相復 委員; 이 件에 대해서는 答辯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曹相彩 委員; 市立博物館하고 美術館建立에 대해서 一問一答으로 質疑, 答辯을 받겠습니다.

○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지금 曹相彩 委員님 먼저 質疑하신 데 대해서 一問一答으로 해서 補充質問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曹相彩 委員; 觀光局長께서 지금 答辯을 하고 계신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答辯을 하고자 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선 時間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質問을 하겠습니다. 市立

博物館·美術館 建立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發注를 保留하고 있는 것은 建築關係다, 이렇게 유인물에도 되어 있고 또 答辯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確定이 되었는데 우리 本委員會에 通報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審議를 要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答辯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그것은 今年 豫算에 20億원을 策定해 주셨기 때문에 推進事項을 報告드리는 것입니다.

○曹相彩 委員; 推進事項은 報告를 한다면 어떻게 工事發注를 연기했다, 그리고 建設部 展示施設 建築制限 92年 6月 30日로 해서 明示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觀光局長이 서울시 의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發注를 하려면 本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서 또 우리 本會議, 豫決委員會 豫算을 確定한 다음에 이것이 確定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執行部에서 임의대로 決定해 가지고 이런 報告를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觀光局長 여기 赴任하신지 아까 2個月되었다고 그랬죠? 2個月 동안에 研究하고 研究한 것이 이것뿐입니까? 지금 이 問題 때문에 많은 매스컴에서 指摘을 하고 있고 또 市民들이 직접 우리 市議員들 한테 問議電話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執行部에서 이려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을 탔고 市民들이 疑惑을 가지고 市議會에 抗議를 하고 이려고 있는데 이제 理解가 갑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局長이 바뀌어진다고 해 가지고 모든 마스터플랜이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來日이라도 局長이 또 바뀌어지면 다시 이것을 計劃을 세울 것 같은데 이것을 확실히 答辯을 하시고, 오늘이 答辯이 부족하면, 지금 觀光局長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書面答辯을 하겠다 했는데 書面

答辯도 本 委員會에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式으로 觀光局長이 本 委員會에 答辯한 答辯姿勢를 취한다면 오늘 이것을 이것으로 마치고 언제 하루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정말로 深度이게 質疑를 하고 答辯을 받고자 하는데 局長 意見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미약하나마 여기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오늘 報告를, 答辯을 다 하시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市立博物館·美術館 建立問題하고 觀光問題 두 가지 件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그러면 答辯해 주세요. 내가 質問한 事項을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序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美術館·博物館이 시작된 지는 85年입니다. 85年에 市 方針이 決定되어 가지고 우리 課長이 敷衍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지금 理解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當爲性 問題나 또 市立博物館이나 美術館을 建立하는데 필요성을 여기서 指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觀光局長은 우리 本 委員會에 와서 報告를 했을 때 이것이 確定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工事を 하려는데 지금 事情에 의해서 工事만, 發注만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內容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그렇습니다.

○曹相彩 委員; 그 對答이 맞아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맞습니다.

○金熙健 委員; 金熙健 委員입니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서 이렇게 發足되어 가지고 일을 進行한 것도 1年밖에 안 되었는데 85年에 計劃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뭔가 推進해 왔

던 흔적들이 있겠지요. 있는데 問題는 뭐냐하면 그렇게 推進 되어 왔던 現況들이 이제는 서울 市議會에 12월에 있는 豫決 特委에서 豫算이 잡혀서 그것이 그 다음 年度에 施行이 되는 것이죠? 議決機關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러면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要旨는 뭐냐하면 지금 現재 말씀하시고 答辯하시고 계신 그런 內容들이 그러한 議決決定事項없이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라는 內容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具體的인 豫算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금년도에는 20億원이 잡혀 있습니다.

○金熙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20億원이라는 것 가지고 市立博物館하고 美術館 다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그렇습니다.

○金熙健 委員; 오늘 現況報告를 듣고 우리가 論議해야 될 問題는 뭐냐하면 計劃內容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도 決定을 해야 돼요. 여기서.....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짓는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熙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決定을 누가 한다는 말씀이 세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그것은 執行部 市長이 決定하는 것이지요.

○金相復 委員; 市長이 決定하면 짓고 議會가 反對하면 안 짓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金相復 委員; 그러면 市長이 決定하면 짓는다면 세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億원 豫算編成時에…….

○金相復 委員; 그때 市長은, 李海元市長은 가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그때 委員님들한테 報告드린 事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확실하게 局長님이 오신 자가 2個月밖에 안 되고 課長님도 많이 바뀌었다면 一問一答이니까 얘기해도 되지요? 많이 바뀌었다면 課長님이 事務陳으로서 대답할 분이 없으면 우리 委員會 法規上 課長級 이상으로 議會에 나가 答辯하게끔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委員이 要求하면 事務關係者도 答辯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도 용납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制度上 問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問題를 이 分科에서 다루어 주었습니다. 發想은 議會가 있기 전에 發想을 했지만 發想이후에 修正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난 해 議會를 하면서 얘기하기를 市立博物館·美術館이 全體가 아니라 慶熙宮址에 대한 全般的인 問題에서 20億원을 금년에 할애를 해 준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리고 博物館·美術館 建立에 필요한 設計費 一部를 承認해 준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20億원 중에 設計費 一部를 承認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設計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執行部の 좋아하시는 市長님한테 물어보고 우리한테도 물어보고 이 設計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決定이 나고 確定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設計를 한 번 해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確定이 되고 市長이 하면 한다 그런 對答이 어디 있어요?

○曹相彩 委員; 追加로 質問할게요. 지금 觀光局長께서 이것

이 確定이 되었다고 그랬죠?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그렇습니다.

○曹相彩 委員; 確定을 서울시장이 確定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豫算이 얼마예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그래서 去年에 저희들 알고 있기는
昨年度 豫算을 세울 때 이 報告를 委員님들한테 드려가지고
今年度에 20億원이 計上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曹相彩 委員; 그러면 20億원 가지고 博物館하고 美術館을
다 지을 수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美術館·博物館이 今年度만 짓는 것
이 아니고 來年度, 저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도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來年度 豫算을.....

○曹相彩 委員; 그런데 지금 觀光局長이 뭘 알고 答辯하는 것
이요? 모르고 答辯하는 것이요? 지금 市立博物館이나 美術館
을 市長이 決定하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市長이 決定해 가지고 委員님들의 承
認을 받으면.....

○曹相彩 委員; 그러니까 委員會에서 決定이 안 됐다는 것 아
닙니까? 지금 豫算決算委員會에서 이 豫算을 確定지어 줘야
建立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20億원이라는 것은 뭐에
요? 答辯해 보세요. 지금 20億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答辯
해도 좋아요. 나와서 答辯하세요.

○文化財課長 高完基; 實務的이고 文化財課長이 答辯드리겠습
니다. 원래 美術館·博物館建立경위가 85년부터 이루어진 것
이기 때문에 조금 委員님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오늘 報告드
린 內容만 가지고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지금 設計自體가 이미 87년부터 基本設計를 하고 88

年 9월에 設計가 完了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曹相彩 委員; 課長님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買入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85年度부터 計劃이 세워져 있던 말씀입니까?

○文化財課長 高完基; 제일 처음에 文化財委員會에서 檢討를 한 것이 85年 1월에 檢討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文化財委員會 意見을 수렴해서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서울시 방침이 85年 6月 28日 方針이 決定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場所가 慶熙宮址이기 때문에, 거기에 復元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되겠다 해서 85年 11월부터 87年 6월까지 2次에 걸쳐서 慶熙宮址 1·2次 發掘調査를 했습니다. 그 發掘調査의 目的은 慶熙宮址를 整備 復元하는 것과 博物館建立 敷地選定 等を 目的으로 해서.....

○曹相彩 委員;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報告 안 해도 저희들이 小委員會 構成까지 하면서 買入過程이라든가 必要性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차례 들었는데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지금 20億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었으며 20억원이라는 內譯이 무엇이냐고 質問을 했어요.

○文化財課長 高完基; 바로 그것을 說明드리려는데요.

○曹相彩 委員; 序論은 必要없어요. 結論만 얘기해요.

○文化財課長 高完基; 設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이루어졌고 5億원이라는 돈이 執行이 되었습니다. 設計가 完了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昨年末에 今年 豫算을 委員님들께서 決定을 해 주시고, 당시에 博物館 建立을 연차적으로 建立을 해야 되기 때문에 今年度에 한다면 豫算을 20億원을 策定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豫算에 의해서 着工을 하려고 했는데 昨年末에 建築制限에 의해서 6月末이라

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7月1日부터 다시 6個月 延長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決定하여 今年初에 14個의 言論機關에서 이 博物館 建立과 關聯된 報道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博物館이 과연 慶熙宮址에 建立하는 것이 정말 妥當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實務的으로 다시 한번 檢討는 했습니다. 當爲性도 檢討를 하고.....

○曹相彩 委員; 檢討를 어떤 方法으로 했어요?

○文化財課長 高完基; 저희들이 6個 場所에 대해서 實務的으로 檢討를 했습니다. 해서 適法性이라든지, 歷史性이라든지 또는 600年事業과 連帶性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檢討한 결과, 그리고 또 시 자체에서도 副市長 主宰로 檢討를 했고요. 또 市長主宰로 檢討한 결과 우선 최종적으로, 建立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新聞에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고요. 委員님들께 報告드리는 次元에서 지금.....

○曹相彩 委員; 지금 課長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것 妥當性을 찾아서 市長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觀光局에서는 그것을 建立을 하되 우리 委員會에는 通報한다 이것 이죠?

○文化財課長 高完基; 이미 慶熙宮址에 建立한다 하는 方針은 이미 먼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昨年 10月에 建立推進計劃이 確定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새로 그 場所에 博物館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그 方針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慶熙宮址의 建立에 대한 반대 意見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여러 가지 檢討해서 최종적으로 그 때도 한번 慶熙宮址에 建立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建立

推進計劃이 決定이 된 것입니다.

○曹相彩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執行部에서 決定을 했지 우리 市議會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이것이 確定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確定되었습니까?

○文化財課長 高完基; 그 關係는 저희 實務經驗이 좀 부족한지 모르지만 昨年度에 豫算報告 당시에 지금 20億원을 策定을 했을 때, 저희들이 慶熙宮址內에 博物館 建立計劃이 94年度까지의 計劃이 報告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設計費 5億원이 나가고 今年度에는 20億원 범위 내에서 工事を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報告를 드리고, 거기에 決定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豫算을 確定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推進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個月 동안 延期되고 있는 가운데 今年 4월에 新聞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曹相彩 委員; 알았어요. 하여튼 課長은 앉으시고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張精一 委員; 總 豫算이 얼마예요?

○文化財課長 高完基; 저희들이 總 豫算은 302億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張精一 委員; 지금 벌써 數年前에 85年初부터 88년에 벌써 慶熙宮址에 하기로 했는데 昨年에는 우리 委員들이 首防司에는 왜 갔을까요?

○文化財課長 高完基; 首防司는 제가 알기로는 傳統文化동네를 首防司에.

○張精一 委員; 그때 首防司에도 美術館 建立이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었기 때문에 首防司에도 가 가지고 한 번 綜合적으로 檢討를 해보자. 그럼 간 것은 그냥 놀러 간 것이네.....

○文化財課長 高完基; 네, 그 問題도.....

○張精一 委員; 좋아요. 局長님한테 여쭙 볼게요. 確定된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問題는 議會하고 執行部하고의 節次上 問題가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慶熙宮터에 좋지 않은 輿論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決定이 됐다고 해 가지고 꼭 그렇게 못질한 것도 아닌데, 決定이 됐다고 하더라도 民願이 많이 야기가 되고 輿論이 좋지 않다면 한 번 바꿔보는데 대한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局長님께서 2個月이 되셨는데 이것이 과연 慶熙宮터에 하는 것이 전체 市民이 다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狀況에서, 다른데, 예를 들면 首防司 자리라도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가 봐 가지고 실지로 보니까 역시 前任者들이 해 놓은 慶熙宮터가 제일 最適地이더라 하는 정도의.....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實務線하고 저희하고 6군데를 봤습니다. 6군데를 봤는데 具體的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6군데를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봤는고 하니 敷地確保問題, 位置가 都心에서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交通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 建築可能 期間가 우리가 定都600年事業이 '94年度까지로보고 있는데 定都600年事業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또 垆地性格이 어떻겠느냐, 住居地域이냐 또는 業務地域이냐, 商業地域이냐, 그 다음에 기존 設計를 活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까도 報告드렸습시다만 5億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88年度에 設計費를 支出했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에 대한 長短點을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結論이 다른데 짓는 것보다는

현재 慶熙宮에 짓는 것이, 세계추세도 말씀드렸습시다만 '宮에 짓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決定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億원은 委員님들이 策定해 주신 그 問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繼續事業이기 때문에 이것이 '94年度까지 繼續事業이기 때문에 今年度建設費 일부로 그렇게 把握을 하고 있습니다.

○金相復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繼續事業은 저희들도 알고 그때 報告를 할 때, 지금 速記錄가지러 갔어요. 20億원 內譯가지러 갔어요..... 이것이 원래 집행부에서 갖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준비할게요. 분명히 責任을 져야 돼요. 할 때에 5億원이 이미 設計費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이것을 어떻게 承認해 주세요 했다고 그러면 5億원을 포기하더라도 더 利益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5億원도 포기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때 對答이 速記錄에 이렇게 나왔어요. 市立博物館과 美術館 建立의 원래 設計는 이것을 南山에 갖다 놓든 용산에 갖다 놓든 設計는 場所만 移動되는 것이지 크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設計는 그대로 합시다 라는 繼續承認 事業입니다. 그것을 안 읽어 봤어요? 引受引繼할 때..... 그렇다면 南山제모습찾기 위해서 그것도 承認 안 해 주려다 承認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繼續事業 되겠네요? 그 承認內容 보세요. 이것 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보기 흉하니까 撤去費用으로 承認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모습찾기의 원래의 計劃은 96年度까지인데 그것도 繼續事業입니까? 아니죠?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文化觀光局長 朴鍾玉; 委員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모습찾

기나 지금 傳統마을 造成은 1·2년에 끝날 事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承認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장구한 期間이 걸려야 하는 事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繼續事業이라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熙健 委員; 지금 서울시의 文化財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局長님의 意慾과 情熱은 제가 높이 삼니다. 問題는 그것이 아니고 그 內容을 어떻게 推進하고 어떠한 方法으로 施行하겠다고 하는 決定事項을 우리 文化教育分科의 委員들과 같은 思考의 틀을 가져야만 그것이 議決이 되고 執行이 될 수 있는 지금 現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懸案報告를 하는 過程에서 지금 우리 委員님들이 갖고 계신 市立博物館과 美術館 建立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認識이나 思考의 틀이 아직 確定의 段階를 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法的인 어떤 節次를 전혀 지금 통하지 않는 內容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內容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저희가 論하고자 하고, 지금 저희가 文化財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지금 輿論에서 얘기하고 있는 反民族的이다. 反文化的이다 하는 部分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과연 지어야 된다면 거기다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問題點들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 確定된 內容을 通報받기 위한 자리는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그 部分에 대해서 繼續事業이다 뭐다 하는 內容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20億원 部分에 대한 內容이 어떻게 豫算에 編成이 되었던 內容은 상세히 한번 檢討를 해 보시고 그리고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曹相彩 委員; 市立博物館하고 美術館 建立에 대해서 質疑한 委員님들께 諒解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質

疑 答辯을 받으려면 너무 時間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것에 앞서서 근본적인 事項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時間에 거론을 하기 이전에 우리도 파악할 事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建立問題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어느 날을 택해서 별도로 審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動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우리 委員會에서 날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審議를 할 수 있도록 日程을 잡는 것을 動議합니다.

○金相復 委員; 動議案 가운데 별도의 날을 잡아 가지고 常任委員會를 다시 열겠다 이것이죠? 우리는 이제 本會議 承認없이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그 가운데 動議에 접목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나머지 質問도 받지 않고, 書面答辯도 받지 않고 그날 答辯받는다. 하는 것을 묶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委員長 權會榮; 지금 曹相彩 委員, 動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오늘 時間도 너무 촉박하고 또 여러 가지 質疑內容이 워낙 많고 또 복잡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終結하고 따로 日程을 잡아서 常任委員會에서 별도로 通報를 해 가지고 우리가 質疑 答辯을 받도록 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여기에 再請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시면 曹相彩 委員의 動議가 可決되었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써 質疑 答辯을 우선 중단하고 다음 一定을 별도로

잡아서 質疑答辯을 받도록 하는 이런 順序가 決定이 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委員 여러분께서 豫定대로 市立大學校를 방문해서 懸案問題를 報告받고 討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께서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時까지 委員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13分 散會)

○出席委員

權會榮 金相復 曹相彩 劉起鍾
孫允準 金熙健 孫馥 李汪烈
張精一 金仁雨 李喆鎬 趙貞順
李載震

○專門委員

鄭永國

○出席公務員

公務員教育院
院長 李元宅
庶務課長 李鍾祿
教育課長 洪熙英
企劃課長 朴鍾丁
文化觀光局
局長 朴鍾玉
文化財課長 高完基
文化課長 李相燾

觀光課長 金賢鍾

世宗文化會館事務局長 陳英浩